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이번 여름,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깊이 탐구하기 위해 베트남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신청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 간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현지 학생들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계획하였다. 특히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베트남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내가 재학 중인 대학교와 학과를 소개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대학생들과의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이러한 기대를 실현할 수 있었다.

우리 조는 하노이에 위치한 한베문화교류센터에 방문하였다. 한베문화교류센터는 한국과 베트남에 각각 한 곳씩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 있는 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생활 수기 공모전, 베트남어 교실 등 아직은 우리나라가 낯설 베트남인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 조가 방문한 베트남에 있는 센터는 지역사회 개발 사업, 교육 사업, 문화 교류사업 등 사회 발전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 조는 하노이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과 문화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활동으로, 우리 학교와 학과를 소개하였다. 신기하게도 조원들의 학과가 모두 달라서 소개가 다채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학교 설명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축제를 소개하였는데, 베트남엔 이러한 축제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듣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또한 내가 속한 학과인 영어영문학과를 발표했을 때,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과목이 필수임을 말하자 현지 학생들이 놀라기도 하였다. 센터에서의 첫 활동으로 우리 학교와 학과에 대해 알려서 뿌듯하였다. 더불어 활동 내내 현지 학생들의 반응을 바로 볼 수 있어 발표를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었으며 전달 방식이 괜찮은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라 보니,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발표 전달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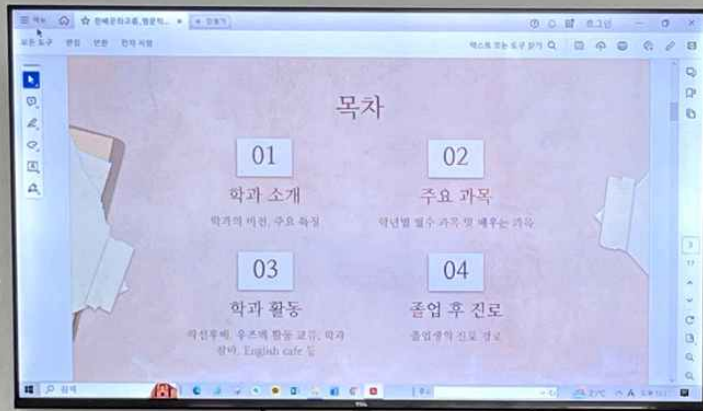
두 번째 활동으로는 한국의 여름 문화를 소개하였다.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파라솔과 여름 필수 물건인 손풍기, 그리고 국내 인기 해변이 위치한 부산, 양양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강도 소개하였다. 학생들이 파라솔이나 손풍기는 몰라도 부산과 한강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이 흥미로웠다. 학생들이 '한강라면'까지 알고 있어, 어떻게 아는지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드라마가 베트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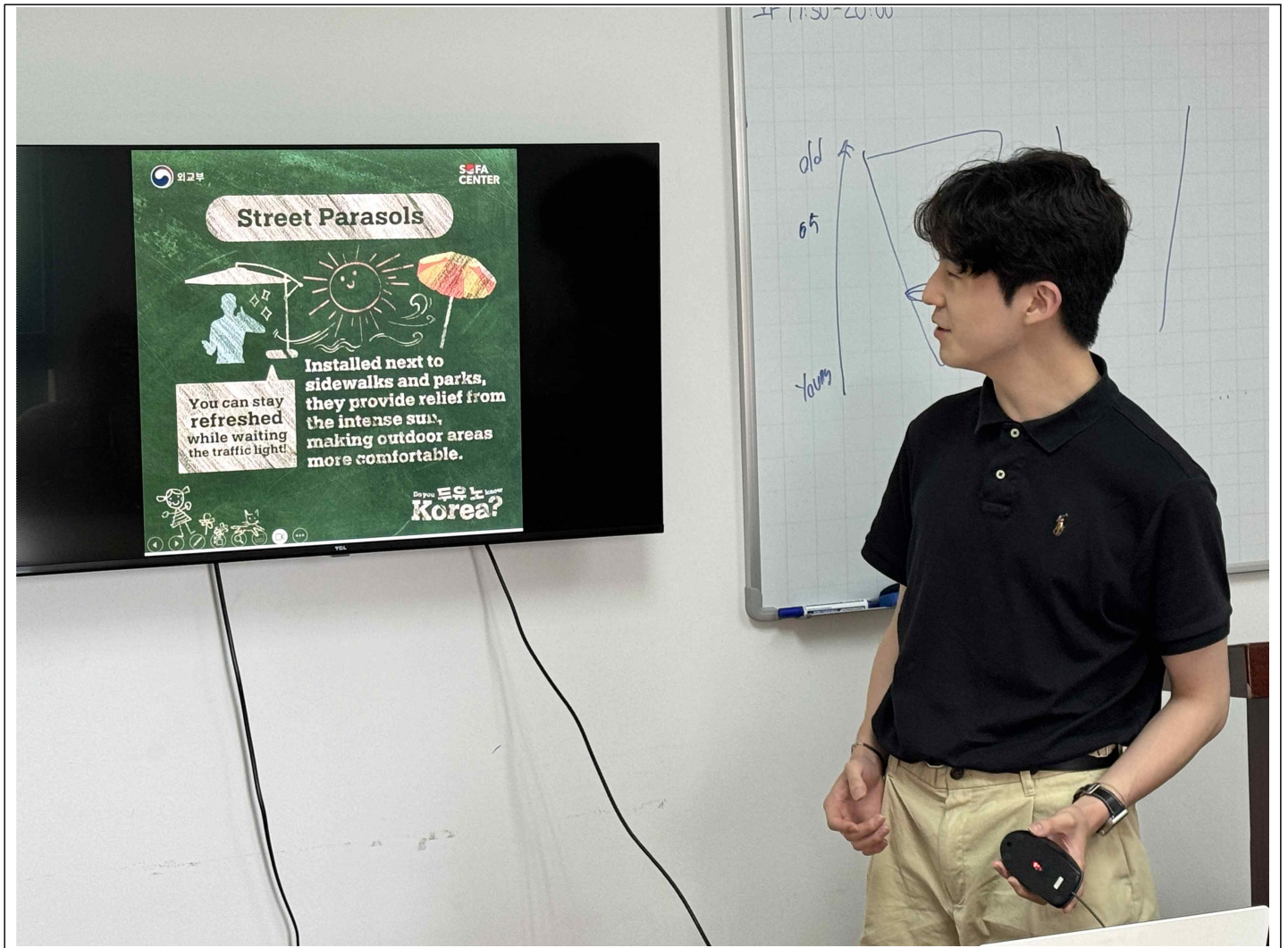
세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한국어로 이야기하였다. 감사하게도 한베문화교류센터 측에서 점심을 제공해주셔서 맛있는 분짜를 먹으며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학생들과의 공통점이 많아서 (비슷한 나이대, 대학생, 한국 문화 관심)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즐겁게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활동에서는 가벼운 주제로 한국어 토론을 진행했다. 센터 측으로부터 학생들이 K-POP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밸런스 게임과 연예인/노래 맞히기를 준비했다. 학생들이 한국인인 나보다 한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 정말 놀라웠다. 특히, 학생들은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최신 유행하는 노래들도 줄줄이 외우고 있었다. 토론은 전부 한국어로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이 한국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매우 우수했다. 참여도도 매우 높아서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보였다. 덕분에 모든 학생들이 유익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화 17:30-20:00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나는 하계 문화 체험을 다녀오기 전까지 국제 통상이나 지역 연구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다. 교직 이수를 준비하고 있어 교육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었기 때문이다.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단순히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하계 문화 체험도 부담 없이 신청하였다. 그런데 하계 문화 체험 중 코트라 등의 기업을 탐방하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내 진로가 국내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계 문화 체험 중 여러 기업을 탐방하면서 나는 국제 무역 분야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또한, 하계 문화 체험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내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다양한 학과에서 온 학우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학과와 진로 이야기를 들었고, 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제 통상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더 나아가 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제 나는 단순히 교육에만 국한된 진로가 아닌, 국제적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편한 것만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좋아하는 것이 하나 생기면 세계는 그 하나만큼 더 넓어진다"는 말처럼,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해외 문화 체험을 갔던 기간이 종강한 바로 다음 주라 팀 활동 준비 기간과 겹쳐 조금 촉박했던 것 같다. 사실, 종강 후 한 주간의 여유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화 체험 관련 팀 활동 준비와 해외 시험 공부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 시간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정이 한 주일 정도 늦춰졌다면, 준비를 더 철저히 했을 터라 아쉬움이 남는다. 해외 문화 체험을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말고사와 문화 체험 팀 활동을 동시에 준비하며, 시간 관리 연습을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 좋은 측면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국제학부와 아주대학교에 감사하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24년 하계 베트남 문화 체험을 다녀온 이지연입니다. 처음에는 국제 통상이나 지역 연구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코트라 등의 기업을 탐방하면서, 저의 진로가 국내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국제 무역 분야에 대한 흥미도 생겼습니다.

둘째로, 다양한 학우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과에서 온 학우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었고, 이는 제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과 현지 문화 체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국제 실무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으며, 앞으로의 진로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된 경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를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